

# 국어 영역

## 제 1 교시

1

[1 ~ 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입니다. 오늘은 독특한 번식 전략을 지닌 해양 생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이 많으니 귀 기울여 들어 주세요.

첫 번째로 심해 아귀를 소개할게요. 심해의 높은 수압과 낮은 온도를 견디며 살아가는 심해 아귀는 개체 수가 적어서 암수가 서로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해 아귀 중 일부는 번식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상대의 몸에 달라붙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 자료 제시) 여기서 큰 아귀가 암컷인데, 그 아래에 붙은 무언가가 보이시나요? 이것은 수컷 아귀입니다. 수컷은 짝을 찾아내면, 사진과 같이 암컷을 물고 놓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수컷의 피부 조직이 암컷에 융합되기 시작하고, 시간이 흐르면 수컷의 혈관까지도 암컷과 융합되어 마치 한 몸처럼 되죠. 수컷은 혈관을 통해 암컷으로부터 평생 영양분을 공급받고, 산란 시기에 맞춰 암컷에게 정자를 제공하며 번식을 이어 갑니다.

다음으로는 해마를 소개합니다. 해마는 수컷이 임신과 출산을 담당하는 번식 전략을 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 자료 제시) 그림의 왼쪽은 수컷 해마의 모습인데요, 배 부분에 있는 육아낭이라는 주머니 덕분에 수컷이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암컷이 수컷의 육아낭 안에 산란하면, 알들은 수컷의 정자와 만나 수정됩니다. 수정된 알은 배아가 되는데, 육아낭에서 약 3주간의 발달 과정을 거쳐 새끼 해마가 됩니다. 그러면 수컷 해마는 산통까지 겪으며 새끼 해마를 출산한다고 해요. 이번에는 그림의 오른쪽을 볼게요. 이것은 육아낭 내부 구조를 확대한 것입니다. 배아와 내층이 보이시죠? 내층은 배아들을 감싸는 두꺼운 층으로 외부 충격으로부터 배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해마는 육아낭을 통해 수컷이 알을 품고 보호하면서 번식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어류가 알을 체외에 방출해 알이 천적에 노출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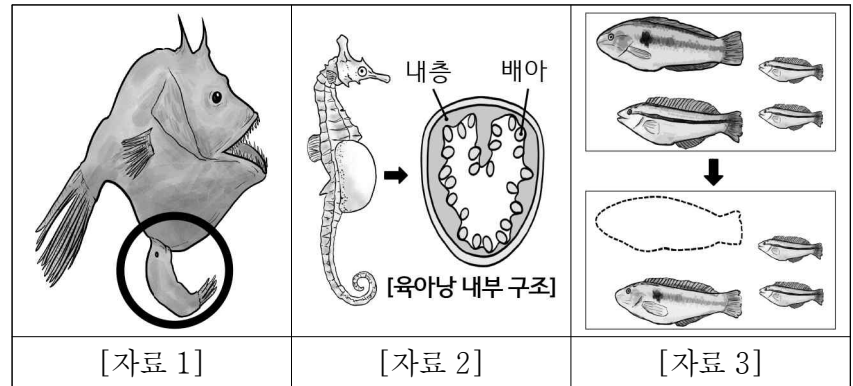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용치놀래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놀래깃과 중 상당수는 한 마리의 수컷이 여러 마리의 암컷을 이끄는 무리 생활을 합니다. 이때 천적의 공격 등으로 무리에서 수컷이 사라지고, 암컷만 남은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 무리 내에서 더 이상 번식이 불가능해지므로 용치놀래기는 무리 내 암컷 중 하나가 수컷으로 변하는 놀라운 전략을 씁니다. (㉢ 자료 제시) 위쪽은 수컷이 무리를 이끌고 있는 모습인데요, 수컷은 무리에서 가장 크고, 몸에 큰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위를 따르는 암컷들은 몸에 점이 없고 떠만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 수컷이 사라지면 아래쪽과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리에서 가장 큰 암컷이 수컷으로 변하고, 몸에 수컷의 특징인 큰 점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해양 생물들의 독특한 번식 전략을 소개했는데요.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발표 마치겠습니다.

1.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발표 내용과 관련된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고 있다.
- ② 청중의 이해도를 확인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 ③ 대상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를 직접 인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④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발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 ⑤ 도입부에서 발표를 하게 된 소감을 밝히며 발표를 시작하고 있다.

2. 다음은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료 1]을 ㉠에서 활용하여 수컷 심해 아귀가 암컷에게 붙어 한 몸처럼 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② [자료 2]를 ㉡에서 활용하여 육아낭을 통해 수컷 해마의 임신과 출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 ③ [자료 2]를 ㉡에서 활용하여 육아낭의 내층이 배아들을 감싸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 ④ [자료 3]을 ㉢에서 활용하여 용치놀래기가 주변의 상황에 따라 몸의 크기를 바꾼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 ⑤ [자료 3]을 ㉢에서 활용하여 암컷 용치놀래기 개체 중 하나가 수컷으로 바뀔 때 몸에 큰 점이 새로 생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3.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나타난 학생의 반응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학생 1:** 심해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햇빛이 닿지 않을 정도로 깊어서 매우 어둡더라고. 이런 곳에서 수컷 아귀가 암컷을 어떤 방법으로 찾아냈을까? 그 내용을 더 찾아봐야겠어.

**학생 2:** 해마에 대해 들으며, 책에서 읽었던 암컷 갯거루의 육아낭에 대한 내용이 떠올랐어. 왜 해마는 수컷이 육아낭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학생 3:** 과학 탐구 주제로 무엇을 정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발표 내용이 도움이 되겠어. 그런데 놀래깃과 중 상당수가 이런 식으로 무리 생활을 한다는 발표 내용이 정확한 걸까?

- ① ‘학생 1’은 발표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탐색하려 하고 있다.
- ② ‘학생 2’는 알고 싶은 정보가 발표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
- ③ ‘학생 3’은 발표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유용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④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배경지식을 떠올리고 있다.
- ⑤ ‘학생 1’과 ‘학생 3’은 모두, 발표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4~7] (가)는 학생회 학생들의 회의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작성한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이번 축제에 초청하기로 한 국악 크로스오버 팀이 몇 가지 질문을 메일로 보내왔어. 오늘은 답장에 들어갈 내용을 정하기 위해 회의를 하려고 해. 다들 내가 공유한 내용을 보고 각자 의견을 정리해 왔지? 각자 생각해 온 의견을 말해 보자. 먼저 공연 팀에서 대중가요를 편곡한 곡과 창작곡 중 어떤 곡이 더 좋은지를 궁금해 했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학생 2: 공연 팀이 보낸 곡 목록을 보니 대중가요를 편곡한 곡이 더 좋다고 생각해. 국악 크로스오버는 국악에 다양한 음악을 접목한 장르잖아. 대중가요에 국악의 느낌을 가미해서 편곡한 곡들이 새롭게 느껴질 것 같아. [A]

학생 3: 난 이미 있는 곡을 편곡한 곡보다는 창작곡이 좋다고 생각해. 창작곡이 더 새로운 느낌을 줄 것 같아.

학생 2: 국악 크로스오버가 약간 생소한 만큼 대중가요를 편곡한 곡이 더 좋지 않을까? 대중가요는 학생들이 익숙하게 느낄 수 있잖아.

학생 3: 듣고 보니 그렇네.

학생 1: 좋아. 그럼 대중가요를 편곡한 곡으로 정하자. 다음으로 는 곡 목록 중에서 구체적인 곡을 선택해야 해.

학생 3: 그건 우리끼리 논의하는 것보다 학생들에게 어떤 곡이 좋은지 설문 조사를 통해 물어보는 게 좋겠어. 내가 설문 조사를 맡을게.

학생 2: 그럼 나도 같이 할게.

학생 3: 좋아. 그런데 창작곡 목록 중에 현대시 ○○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곡이 있잖아. 수업 시간에 배운 시로 만들어진 곡이라서 학생들이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학생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감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 곡은 추가로 연주해 달라고 요청해 보면 어떨까?

학생 2: 좋은 생각이야. 특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축제이니,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을 추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의미 있다고 생각해.

학생 1: 좋아. 그럼 그 곡을 추가로 요청하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공연 팀이 제작한 영상이 있다고 하면서 그 영상을 공연 중간에 보여 줄 수 있는지도 궁금해 했어.

학생 3: 가능하긴 한데, 축제 때는 무대 조명이 너무 밝기 때문에 영상이 흐리게 보일 거야.

학생 2: 그래. 영상이 흐리게 보일 거야. 그렇다고 조명의 밝기를 낮추면 영상은 잘 보이겠지만 연주자들 공연이 잘 안 보일 것 같아. 이번에 교내 합창 동아리도 공연 중에 영상을 보여 준다고 했어. 합창 동아리는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물어보자. [B]

학생 1: 알겠어. 합창 동아리에는 내가 물어볼게. 설문 조사 결과는 내일까지 보내 줘. 그럼 답장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해서 초고를 써 볼게. 다음 시간에 함께 검토해 보자.

학생 2, 3: 그래.

(나)

안녕하세요. 우리 학교 축제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 주신 메일은 잘 받았습니다. 저희가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질

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먼저, 대중가요를 편곡한 곡을 연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국악 크로스오버 공연이 생소할 수 있으므로 대중가요를 편곡한 곡들이 더 익숙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연주해 주셨으면 하는 곡 목록은 파일로 첨부해 드립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듣고 싶어 하는 곡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보내 주신 곡 목록 중 가장 인기가 많았던 곡은 △△곡이었습니다. 첨부된 파일에 이 곡을 포함한 다른 신청곡들의 목록과 곡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가 함께 적혀 있으니 공연 준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요청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현대시 ○○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곡을 특별히 연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는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운 작품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에 담긴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은 학생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감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축제인 만큼, 이 곡을 연주해 주신다면 학생들이 함께했던 순간들을 추억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연 중에 영상을 보여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보여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무대 조명이 너무 밝아 영상이 흐리게 보일 수 있어서 조명의 밝기를 낮춰야 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바닥 조명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⑦ 다시 한번 학교 축제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공연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4. (가)의 ‘학생 1’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회의의 목적을 밝히며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 ② 회의 참여자들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 ③ 회의 참여자에게 이어서 논의할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④ 회의 참여자에게 회의 이후 수행해야 할 일을 안내하고 있다.
- ⑤ 회의 참여자의 발언과 관련해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5.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학생 3’은 ‘학생 2’가 말한 내용을 반박하며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 ② [A]에서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며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 ③ [B]에서 ‘학생 2’는 ‘학생 3’이 말한 내용을 긍정하며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고 있다.
- ④ [B]에서 ‘학생 2’는 ‘학생 3’의 발화 내용을 일부 재진술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덧붙이고 있다.
- ⑤ [A]와 [B]의 ‘학생 3’은 모두 고민되는 부분을 언급하며 자신이 생각하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6. (가)의 회의 내용이 (나)에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에서 대중가요를 편곡한 곡을 선택하겠다고 언급한 내용이, (나)에서 곡 선택의 이유를 언급하며 제시되었다.
- ② (가)에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곡을 알아보자고 한 바가, (나)에서 설문 조사를 한 결과로 제시되었다.
- ③ (가)에서 현대시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곡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나)에서 학생들의 예상되는 반응을 언급하며 제시되었다.
- ④ (가)에서 연주곡을 추가로 요청하자고 한 내용이, (나)에서 연주가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의미를 언급하며 제시되었다.
- ⑤ (가)에서 무대 조명의 밝기를 낮출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나)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언급하며 제시되었다.

7. <보기>에 제시된 학생들의 조언에 따라 ㉠을 고쳐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학생 2: 우리가 알고 있는 국악 크로스오버라는 장르의 특성을 언급하며 이번 공연이 갖는 의의를 전하자.

학생 3: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좋겠어.

- ① 이번 국악 크로스오버 공연에서 다양한 음악 장르를 새롭게 감상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 ② 학생들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아름다운 선율이 춤추는 국악 크로스오버 공연 부탁드립니다.
- ③ 국악 크로스오버 음악은 옛것과 현대의 조화가 특징인 새로운 장르의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 ④ 이번 국악 크로스오버 공연이 학업에 지친 학생들의 감성을 적시는 반가운 단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 ⑤ 무지개처럼 국악에 다양한 음악이 어우러져 탄생한 국악 크로스오버 공연이 뜻깊은 축제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8 ~ 10] 다음은 작문 상황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학생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 글의 주제: 생활 속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안전성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
- 예상 독자: 우리 학교 학생들

[학생의 초고]

휘발성 유기 화합물은 상온에서 쉽게 증발하여 기체가 되는 유기 화합물로 방향·탈취 용품 같은 다양한 생활 화학 제품에 널리 사용되는 성분이다. 모든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유해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두통, 알레르기 반응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방향·탈취 용품은 주로 실내에서 사용하므로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방향·탈취 용품에 대한 소비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생활 속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사회 전반의 노력이 요구된다.

먼저, 우리나라는 생활 화학 제품에 포함된 유해성을 띤 휘발성 유기 화합물에 대해 그 함량을 규제하고 제품의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함량이 규제된 휘발성 유기 화합물 중 일부가 아직 성분 표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 중 성분 표시를 해야 하는 대상을 늘려야 한다.

다음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은 향기의 지속력이나 확산력과 같은 기능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사용을 줄이는 것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 기업은 성분의 안전성도 고려한 제품 개발을 위해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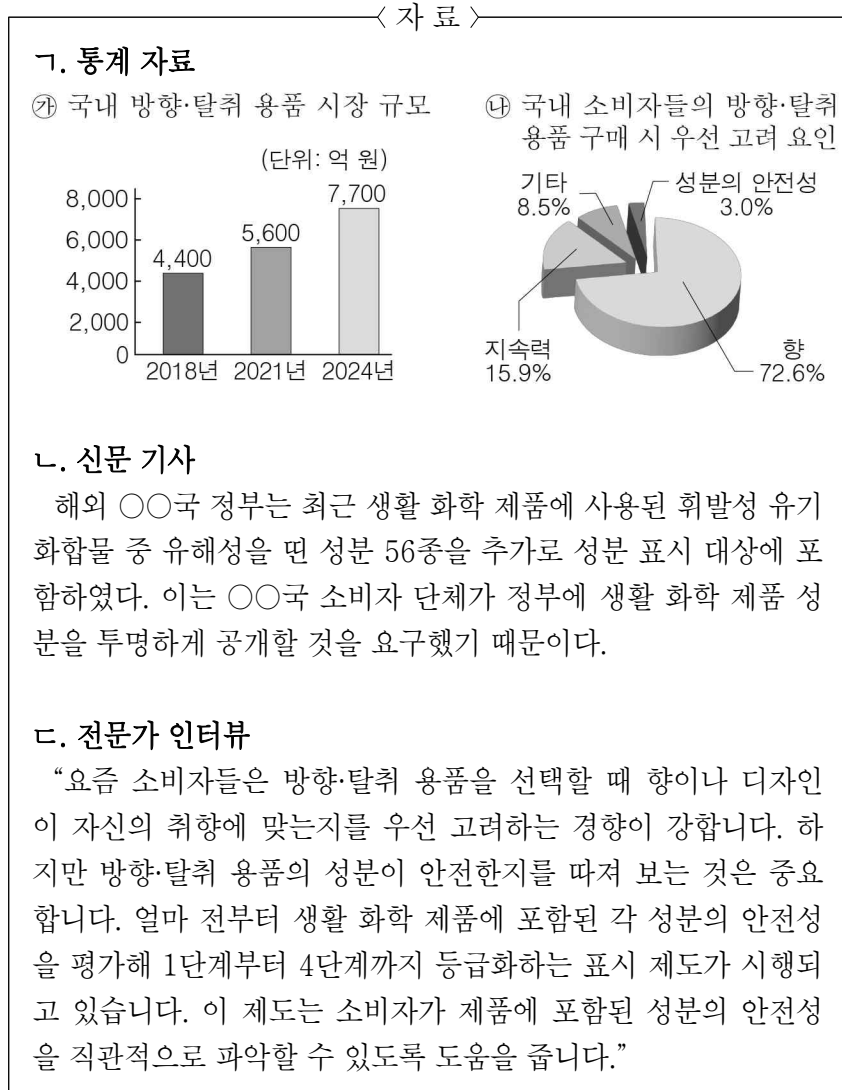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은 향과 같은 감각적 만족감을 우선시하여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또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성분 표시를 잘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소비자들은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사용된 제품의 성분 표시를 꼼꼼히 살피고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 성분의 안전성을 따져 보는 소비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A]

8. 학생의 초고에 활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답변을 미리 제시한다.
- ② 속담을 활용하여 제재가 지닌 시의성을 드러낸다.
- ③ 생소한 용어의 어원을 밝혀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 ④ 담화 표지를 사용하여 글의 내용을 구조적으로 제시한다.
- ⑤ 다른 대상과 비교하여 제재가 지닌 장점과 단점을 밝힌다.

9.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의 초고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를 활용하여, 국내 방향·탈취 용품 시장 규모의 변화 추이를, 방향·탈취 용품에 대한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해야겠어.
- ② ㉢을 활용하여, 유해성을 띤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추가로 성분 표시 대상에 포함한 해외 사례를, 성분 표시를 해야 하는 대상을 늘려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한 사례로 제시해야겠어.
- ③ ㉣을 활용하여, 각 성분의 안전성을 등급화하여 표시하는 제도를,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제품 성분의 안전성을 따져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으로 제시해야겠어.
- ④ ㉠-㉢과 ㉢을 활용하여, 해외 소비자 단체가 생활 화학 제품 성분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을,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성분보다 향을 중시하는 이유로 제시해야겠어.
- ⑤ ㉠-㉢과 ㉣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이 성분 표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소비자들이 감각적 만족감을 우선시하여 제품을 선택한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해야겠어.

10. <보기>는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A]를 작성한 것이다. 선생님의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휘발성 유기 화합물은 실내를 향기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유용한 성분이다. 이러한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정부, 기업, 소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 ①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활용되는 분야를 언급한 뒤, 연구를 위한 기업의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자.
- ② 휘발성 유기 화합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언급한 뒤, 정부와 기업, 소비자가 협력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자.
- ③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꼭 필요한 이유를 언급한 뒤, 기업이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제시하자.
- ④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지닌 효용성을 언급한 뒤, 이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여러 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자.
- ⑤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사용할 때 우려되는 점을 언급한 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정부, 소비자의 상호작용이 필요함을 제시하자.

[11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상하 관계는 한 단어가 의미상 다른 단어를 포함하거나 다른 단어에 포함되는 관계를 말한다. 이때 포함하는 단어가 상위어, 포함되는 단어가 하위어이다.

일반적으로 두 단어 간의 관계를 파악할 때 각 단어의 의미 성분을 분석하여 이를 비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상하 관계 여부도 알아볼 수 있다. 의미 성분 분석이란 단어의 의미를 더 작은 의미 단위인 의미 성분으로 분해하여 표시하는 방법으로, 각 단어가 해당 성분을 포함하는지 포함하지 않는지를 [+], [-] 기호를 통해 표시할 수 있다. ‘동물’과 ‘새’의 의미 성분을 각각 분석해 보면, ‘동물’은 [+생명체][+움직임], ‘새’는 [+생명체][+움직임][+날개]와 같이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서 하위어인 ‘새’는 상위어인 ‘동물’의 의미 성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하위어는 상위어의 의미 성분을 모두 포함하면서 다른 의미 성분을 추가로 지니기 때문에 상위어보다 의미 성분의 수가 많고, 지시 대상의 범위가 좁으며 의미가 더 구체적이다. 또한 ‘물고기’를 [+생명체][+움직임][+아가미]로 분석하여 ‘새’와 비교하면, ‘새’와 ‘물고기’는 [+생명체][+움직임]이라는 의미 성분을 공유하면서 각각 다른 의미 성분을 지닌다. 이때 ‘새’와 ‘물고기’는 ‘동물’에 의미상 포함되는 단어로서 동일한 상위어를 공유하는, 같은 층위의 단어라는 점에서 ‘동물’의 공하위어라고 한다.

상하 관계는 함의라는 개념을 활용해 살펴볼 수 있다. 문장 p가 참이면 반드시 문장 q가 참이고, 문장 q가 거짓이면 반드시 문장 p가 거짓일 때 문장 p는 문장 q를 함의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문장 p는 문장 q를 함의하지만, 문장 q는 문장 p를 함의하지 않을 때를 가리켜 일방적 함의라 한다. 다른 부분은 동일하고 단어 하나씩만 서로 다른 두 문장이 일방적 함의 관계이면, 서로 다른 해당 단어들 사이에서는 일방적 함의 관계가 성립한다. 상하 관계에서는 일방적 함의 관계가 성립한다.

- (1) 철수는 사과를 먹었다.
- (2) 철수는 과일을 먹었다.

위의 경우에서 (1)은 (2)를 함의하지만 (2)는 (1)을 함의하지 않으므로 상하 관계인 ‘사과’와 ‘과일’ 사이에는 일방적 함의 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상위어와 하위어 사이에는 ‘사과는 과일의 일종이다.’처럼 ‘A는 B의 일종이다.’의 관계가 성립한다.

어떤 단어가 특정 문맥에서만, 다른 단어의 하위어로 인식되는 경우는 유사 상하 관계라고 한다. ‘병사가 칼로 무장했다.’라는 문장과 ‘병사가 무기로 무장했다.’라는 문장을 보면 일방적 함의 관계가 성립한다. 하지만 ‘요리사가 칼로 양파를 손질했다.’와 ‘요리사가 무기로 양파를 손질했다.’라는 문장에서는 일방적 함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칼’과 ‘무기’는 유사 상하 관계이다.

한편, 부분 관계는 한 단어가 다른 단어가 지시하는 대상의 일부를 나타내는 관계로 ‘엔진’과 ‘자동차’의 관계를 예로 들 수 있다. 부분 관계에서는 ‘엔진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문장과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문장에서 보듯이 일방적 함의 관계가 성립할 수는 있다. 그러나 ‘A는 B의 일종이다.’라는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부분 관계는 상하 관계와 다르다.

## 11.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의미 성분 분석은 단어의 의미를 더 작은 의미 단위로 분해하여 표시하는 방법이다.
- ② 두 단어가 서로 공유하는 의미 성분이 없을 경우에도 상하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 ③ 상하 관계에서 동일한 하위어를 공유하는 단어를 공하위어라고 한다.
- ④ 상위어의 의미 성분은 [+]로, 하위어의 의미 성분은 [-]로 표시한다.
- ⑤ 하위어란 의미상 다른 단어를 포함하는 단어를 말한다.

## 12.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1) 차가운 물속에도 물고기가 살고 있다.
	2) 차가운 물속에도 동물이 살고 있다.
㉡	1) 오늘 아침에 나는 손가락을 다쳤다.
	2) 오늘 아침에 나는 손을 다쳤다.
㉢	1) 그녀는 집에서 개를 기른다.
	2) 그녀는 집에서 반려동물을 기른다.
	3) 경찰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산에 개를 풀었다.
	4) 경찰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산에 반려동물을 풀었다.

- ① ㉠: ‘동물’보다 ‘물고기’의 의미가 더 구체적이고, 지시 대상의 범위가 좁다.
- ② ㉠: ‘물고기’와 ‘동물’은 상하 관계이고, ‘물고기’가 ‘동물’의 의미 성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 ③ ㉡: ‘손가락’과 ‘손’ 사이에는 ‘A는 B의 일종이다.’라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 ‘손가락’과 ‘손’은 부분 관계이고, 2)가 참일 때 1)은 반드시 참이 되고, 1)이 거짓일 때 2)는 반드시 거짓이 된다.
- ⑤ ㉢: ‘개’와 ‘반려동물’은 1)과 2) 사이에서는 일방적 함의 관계가 성립하고, 3)과 4) 사이에서는 일방적 함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 13.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학습 활동 >

각 주머니에서 카드 하나씩을 뽑아 두 카드에 적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주머니 1

㉠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안은 문장

㉡ 간접 인용절을 안은 문장

주머니 2

㉢ 용언의 관형사형이 관형어로 쓰인 문장

㉣ 사동사에 의한 사동문

㉤ 능력 부정에 해당하는 긴 부정문

	뽑은 카드	만들어진 문장
①	㉠, ㉢	할머니는 언제나 내가 건강하기만 바라는 분이시다.
②	㉠, ㉣	그는 이번 책이 독자들에게 많이 읽히기를 바란다.
③	㉠, ㉤	그녀는 자신의 실력이 부족해 대회에 나가지 못했음을 친구에게 털어냈다.
④	㉡, ㉣	의사는 보호자에게 환자를 어서 눕히라고 말했다.
⑤	㉡, ㉤	그는 외국어를 몰라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곳이 어디냐고 묻지 못했다.

## 14. <보기>의 선생님의 설명을 바탕으로 음운 변동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선생님:** 표준발음법에서는 ‘ㅎ’의 발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ㅎ’은 음운 환경에 따라 교체, 탈락, 축약 등의 음운 변동을 겪기도 합니다.

- ① ‘많은’에서는 자음군 단순화를 통해 ‘ㅎ’이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② ‘놓고’에서는 ‘ㅎ’이 뒤의 ‘ㄱ’을 만나 거센소리로 축약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③ ‘꽃히다’에서는 ‘ㄷ’이 뒤의 ‘ㅎ’을 만나 거센소리로 축약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④ ‘않는’에서는 자음군 단순화를 통해 ‘ㅎ’이 탈락한 후, 뒤의 ‘ㄴ’이 앞의 ‘ㄱ’을 만나 유음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⑤ ‘쌍네’에서는 ‘ㅎ’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이 된 후, ‘ㄷ’이 뒤의 ‘ㄴ’을 만나 비음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15.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선생님:** 중세 국어의 의문문은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으로 나뉩니다. 판정 의문문은 단순히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이고, 설명 의문문은 일정한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입니다.

**학생:** 중세 국어 의문문은 현대 국어와 어떻게 달랐나요?

**선생님:** 중세 국어에서는 의문문 종류에 따라 다른 종결 어미를 사용했습니다. 판정 의문문에서는 종결 어미 ‘-너’가, 설명 의문문에서는 종결 어미 ‘-뇨’가 쓰였습니다. 또 주어가 2인칭일 때는 의문문의 종류와 관계없이 종결 어미 ‘-ㄴ다’가 쓰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이해했는지 [학습 활동]을 통해 점검해 볼까요?

[학습 활동]

○ 太子(태자) | 이제 어디 ㉠  
(태자가 이제 어디 있느냐?)

○ 내 니르던 究羅帝(구라제) 眞實(진실)로 ㉡  
(내가 이르던 구라제가 진실로 그러하더냐?)

○ 네 었던 바블 ㉢  
(네가 어떤 밥을 구하는가?)

	㉠	㉡	㉢
①	잇느너	그러터너	求(구)ㅎ느다
②	잇느너	그러터뇨	求(구)ㅎ느뇨
③	잇느뇨	그러터너	求(구)ㅎ느다
④	잇느뇨	그러터너	求(구)ㅎ느뇨
⑤	잇느뇨	그러터뇨	求(구)ㅎ느뇨

[16 ~ 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데카르트는 『방법서설』에서 이성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학문의 진리를 구하는 방법에 관해 논의하며, 이성적 판단을 ㉠ 내리기 위해서는 선입견을 초월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때 선입견은 이성이라는 기준을 통해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이해의 총체를 가리키는데, 선입견을 초월한다는 것은 전통과 습관, 관습, 공동의 의견,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운 지식 등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을 초월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데카르트는 우리가 선입견을 배제한 상태여야 외부의 권위와 영향력에 의존하지 않은 판단, 즉 비관여적 판단을 통해 진리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데카르트는 선입견과 이성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기 위해 끝없는 경쟁을 벌인다고 보았다. 데카르트는 우리가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데 있어 스스로가 감각한 것을 그대로 신뢰하는 성향이 있다고 하며, 이렇게 감각한 현상이 곧 실재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입견으로 보아 비판적으로 인식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감각한 현상은 곧 실재, 즉 객관적 세계라고 가정하지만, 데카르트는 감각한 현상이 우리의 주관적 상상력의 산물에 불과할 수 있다

는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어떤 하나의 감각으로부터의 판단을 교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다른 감각이 될 수 없으며 이성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데카르트의 관점에 따르면 우리의 판단은 온전한 이성에 의한 것이 되어야 하지만 이미 형성된 의견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전에 받은 교육은 이성 에 의한 판단을 어렵게 하는 하나의 제약이 될 수 있다. 데카르트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선입견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방법적 회의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방법적 회의는 기존에 의심 없이 받아들인 지식을 비롯해 의심 가능한 모든 것을 의심해 보는 것을 ㉡ 말하며, 마음속에 남아 있는 선입견을 제거함으로써 온전한 ‘사유하는 자아’만을 남게 한다. 데카르트는 사유하는 자아가 되면 이성을 기준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는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를 교육의 목적으로 보았다. 이에 따르면 모든 교과는 학습자의 자기 인식을 목표로 하며 교사의 역할은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나)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는 선입견으로 인해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발판으로 ㉢ 삶아 이해의 작용을 한다고 보았다. 하이데거의 입장에서 인간 존재의 이해의 작용은 필연적인 것으로, 하이데거는 이해의 작용에 있어 인간 존재는 선이해, 즉 앞서 형성된 이해인 선입견을 이미 ㉣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인간 존재는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이해를 하는 이해의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하이데거의 입장에서 인간 존재는 선입견을 가진 채 세계와 만나며, 선입견은 세대와 세대가 필연적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가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을 단순한 정신적 활동이 아니라 세계에 관여하는 것, 즉 세계 안에서 살며 삶의 현장에서 세계와 관련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라 여겼다. 이때 세계는 단순히 사회적 맥락이나 관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직접적인 활동 영역, 즉 삶의 포괄적 환경을 일컫기 때문에 이해란 필연적으로 실천적인 차원을 지닌다.

선입견은 인간 존재가 겪어 온 시간 속에서 형성되므로, 현재의 이해의 작용은 인간 존재의 유한한 역사를 바탕으로 한다.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를 바로 지금 그곳에 있는 존재라는 의미로 ‘현존재’라고 지칭하는데, 인간 존재는 언제나 특정 역사, 사회, 관계 등 자신이 존재해 온 삶의 이력을 바탕으로 존재하며, 그와 동시에 현재 진행되는 세계를 능동적으로 살아간다.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때 순간 이루어지는 인간 존재의 이해는 과거의 시간성에 기인하고 있다는 특성을 갖는다.

인간 존재가 역사적인 존재인 이상, 세계에 대한 인간 존재의 인식은 무한한 현재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된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인간 존재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해석의 순환 과정을 ㉡ 겪는다. 인간 존재는 선입견을 바탕으로 세계를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입견을 발전시키며 다시 발전된 선입견을 바탕으로 해석 활동을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세계에 대한 인간 존재의 이해는 하나의 고정된 의미로 완결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하이데거는 흔히 객관적 사실이라고 생각되는 과학적 언술도 완결되지 않은 조건부 진리이며, 객관적인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모습을 서술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하이데거는 숙고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교육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숙고란 자신이 포함된 세계와 그 속에 존재하는 자신의 존재를 함께 이해하는 것을 이른다. 하이데거는 이성의 능력을 도야하는 전통적 의미의 교육이, 인간 존재가 포함된 세계와 인간 존재를 분리된 것으로 인식하고 인간 존재를 둘러싼 세계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중시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하이데거의 관점에 따른 교육은 이해 주체인 인간 존재가 세계와 분리되지 않은 채 사유하는 법을 중시한다고 할 수 있다.

16.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선입견에 대한 철학자의 주장을 소개하고 그 주장에 나타난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선입견에 대한 철학자의 견해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특정 분야에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선입견에 대한 철학자의 이론을 제시하고 그 이론의 변천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 ④ (가)는 (나)와 달리, 선입견에 대해 철학자가 제시한 다양한 사례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특징을 비교하고 있다.
- ⑤ (나)는 (가)와 달리, 선입견에 대해 철학자가 정의한 개념을 밝히고 그 개념이 시대에 따라 달리 수용된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17. (가), (나)를 읽고 학생이 정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데카르트	선입견과 이성인 인간의 삶을 지배하기 위해 끝없는 경쟁을 벌임. ....㉠
	인간의 판단은 이미 형성된 의견에 종속되어 있어 오류가 발생하기 쉬움. ....㉡
	어떤 하나의 감각으로부터의 판단을 교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이성이 아닌 다른 감각임. ....㉢
하이데거	선입견은 세대와 세대가 필연적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나타냄. ....㉣
	인간 존재를 바로 지금 그곳에 있는 존재인 현존재라고 지칭함. ....㉤

- ① ㉠      ② ㉡      ③ ㉢      ④ ㉣      ⑤ ㉤

18.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 존재가 지닌 유한한 역사는 이해의 작용에 있어 제약이 된다.
- ② 인간 존재는 이해 작용을 하기 위해 특정 역사나 사회, 관계 등을 배제해야 한다.
- ③ 인간 존재에게 이해되는 세계는 삶의 포괄적 환경이 아니라 특정 사회적 맥락을 일컫는다.
- ④ 인간 존재의 이해에 바탕이 되는 선입견은 인간 존재가 겪어 온 삶의 이력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 ⑤ 인간 존재의 이해 작용은 과거 시점으로부터 시작되므로 현재 시점에서의 인간 존재의 이해는 하나의 고정된 의미로 완결된다.

19. ‘교육’에 대한 데카르트와 하이데거의 입장을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데카르트는 교육을 통해 사유하는 자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고, 하이데거는 교육이 조건부 진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 ② 데카르트는 교육이 전통과 습관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고, 하이데거는 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이성적 능력을 도야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③ 데카르트는 학습자가 이성에 의해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고, 하이데거는 교육이 전통적 의미의 교육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④ 데카르트는 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의심 가능한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한다고 보았고, 하이데거는 학습자의 이해가 실천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
- ⑤ 데카르트는 교육의 목적이 학습자가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데 있다고 보았고, 하이데거는 교육에서 학습자가 세계와 분리되지 않은 채 사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20. <보기>는 학생이 작성한 학습 일지이다. 이에 대해 (가)의 데카르트(A)의 관점과 (나)의 하이데거(B)의 관점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수업 시간에 빛의 굴절을 배웠다. 수업 전에는 빛이 굴절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개념과 원리는 몰랐다. 선생님께서 물이 든 컵 안의 막대를 보여 주셨는데, 막대가 꺾인 것을 보고 원래 꺾인 막대라고 생각했다. 선생님께서는 막대가 꺾인 것이 아니라고 하며 빛의 굴절 현상을 설명하셨다. 이를 통해 빛의 굴절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했고 그것들을 객관적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저녁에 수영장에 갔는데 보이는 것보다 물이 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수심을 확인하며 빛의 굴절이 내 삶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 ① A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빛의 굴절에 대한 지식은, 진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선입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A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물이 든 컵 안의 막대가 꺾인 것을 보고 원래부터 꺾인 막대라고 생각한 것은, 스스로가 감각한 것을 그대로 신뢰하는 성향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B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수업 전에 비해 빛의 굴절에 대한 이해를 심화한 것은, 해석의 순환 과정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B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수심을 확인하며 빛의 굴절을 자신의 삶과 관련지은 것은, 인간 존재가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⑤ B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생각한 빛의 굴절의 개념과 원리는, 지금 눈앞의 모습을 서술한 것이 아닌 객관적 세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21. 문맥상 ㉠~㉥와 가장 유사한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 올해는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다.
- ② ㉡: 나는 동생에게 그 사실을 말하러 갔다.
- ③ ㉢: 그는 이번 일을 성장의 계기로 삼았다.
- ④ ㉣: 나는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었다.
- ⑤ ㉤: 그는 며칠 동안 손님을 견느라 고단했다.

[22 ~ 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기는 연속적인 유체로, 사방으로 운동한다. 대기의 상태는 기압, 기온, 습도, 바람 등의 변수로 나타내는데, 이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대기의 상태가 변한다. 이러한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수치예보가 활용되는데, 수치예보는 대기의 운동과 변화를 설명하는 복잡한 방정식들을 슈퍼컴퓨터로 계산하여 미래의 대기 상태를 모의하고 기상 현상을 예측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때 모의한다는 것은 방정식들의 근사해를 구하여 미래의 대기 상태를 도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치예보를 위해서는 슈퍼컴퓨터로 수치예보 모델을 가동하는데, 수치예보 모델을 가동하는 목적에 따라 모의할 대기의 영역을 정한 후 그 영역을 격자 단위로 세분화한다.

모의 영역은 지표면에 수직인 연직 방향으로 여러 층으로 나누어지고, 각 층은 위도와 경도의 수평 방향으로 일정하게 나누어진 격자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대기는 육면체의 공기 덩이들의 집합체가 되며, 각 공기 덩이에서는 변수의 값이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계산된다. 수평 방향의 해상도는 격자점 간 거리가 좁을수록 높고, 연직 방향의 해상도는 연직 방향의 층수가 많을수록 높다. 그리고 시간 간격이 좁을수록 대기 상태의 변화 양상을 연속적으로 모의할 수 있다. 대기를 모의하는 정도는 분해능으로 나타내는데, 분해능은 시공간적으로 대기 상태를 얼마나 세밀하게 모의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따라서 공간분해능과 시간분해능이 높을수록 대기를 세밀하게 모의할 수 있다. 공간분해능은 격자점 간 거리로, 시간분해능은 시간 간격으로 나타내며, 각각의 값이 작을수록 분해능이 높다.

공간분해능과 시간분해능은 서로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수평 방향의 공간분해능을 대기의 최대 속도로 나눈 값을 시간분해능의 상한선으로 둔다. 이는 대기가 정해진 시간 간격 동안 격자점 간 거리보다 더 멀리 이동하게 되면 변수의 값을 구할 수 없는 격자점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모델에 이미 설정된 수평 방향의 공간분해능을 두 배로 높이면 계산의 안정성을 위해 연직 방향의 공간분해능과 시간분해능도 각각 두 배로 높인다. 그러면 3차원 공간의 세 축과 시간 차원에서 각각 계산량이 두 배로 증가하게 되어, 전체 계산량은 2<sup>4</sup>배가 된다.

모의 영역의 대기를 격자 단위로 세분화한 뒤에는 방정식들을 계산하기 위한 조건을 설정한다. 시간에 대한 초기 조건 설정은 모의를 시작하는 시점에서의 대기 상태를 설정하는 것으로, 격자점마다 대기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의 값을 개별적으로 부여한다. 공간에 대한 **경계 조건** 설정은 모의 영역의 하단, 상단, 측면 경계에서의 대기 상태를 설정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대기와 에너지의 상호작용 및 대기의 이동 등이 반영된다. 먼저, 하단 경계에서는 대기가 지표면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대기의 연직 운동이 없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지표면 부근에서는 대기와 지표면 간에 복잡한 에너지 교환이 발생하는데, 특히 지표면이 흡수한 태양 에너지가 열과 수증기의 형태로 대기에 전달되면서 대기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의 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하단 경계의 조건을 설정할 때는 이러한 에너지의 흐름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상단 경계에서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대기의 연직 운동이 약해지고 상향 전파되는 에너지가 점차 줄어드는 특성을 고려한다. 이에 따라 최상층 고도에서 대기의 연직 운동이 없다고 가정하고 연직 속도를 0으로 설정하는데, 이렇게 하면 영역 외부로 빠

져나가야 할 에너지가 최상층에서 반사되어 영역 내부로 되돌아오는 것으로 모의된다. 그 결과 영역 내부에서 에너지가 비현실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모의되어 대기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의 값이 왜곡될 수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영역 내부에 감쇠층을 두어 에너지가 감쇠층에서 흡수되도록 계산하는 방법과 상향 전파되는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흩어지도록 계산하는 방법을 함께 적용한다. 이때 최상층 고도가 약 80km 이상으로 충분히 높으면 후자가, 최상층 고도가 그보다 낮으면 전자가 주요하게 작용한다.

측면 경계에 대한 조건은 제한된 영역의 대기 현상을 모의하는 모델인 지역 모델에서 설정한다. 측면 경계에서는 영역의 모든 층에서 대기의 유출입이 계속 발생하므로 영역 외부의 대기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의 값을 영역 내부에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지역 모델은 지구 전체의 대기 현상을 모의하는 모델인 전지구 모델에서 자료를 제공받아 측면 경계 조건으로 활용한다. 이는 지역 모델과 상위 모델인 전지구 모델 간에, 대기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의 값이 불일치하는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22.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기의 상태는 기압, 기온, 습도, 바람 등의 변수로 나타낸다.
- ② 시간 간격이 좁을수록 대기 상태의 변화 양상을 연속적으로 모의할 수 있다.
- ③ 수치예보 모델이 모의하는 영역의 대기는 육면체의 공기 덩이들의 집합체가 된다.
- ④ 대기를 모의하는 정도는 분해능으로 나타내는데 분해능에는 공간 분해능과 시간분해능이 있다.
- ⑤ 정해진 시간 간격 동안 대기가 이동한 거리보다 격자점 간 거리가 멀면 변수의 값을 구할 수 없는 격자점이 생긴다.

23.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이 정리한 메모이다.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수치예보는?  
- 대기 상태를 모의하고 기상 현상을 예측하는 일이다.

- ㉠

\* ‘모의한다’는 것의 의미는? ㉡

○ 수치예보 모델의 준비 과정은?

모의 영역 설정	→	격자 단위로 세분화	→	조건 설정
㉢		㉣		㉤

- ① ㉠: 대기의 운동과 변화를 설명하는 방정식들을 슈퍼컴퓨터로 계산한다.
- ② ㉡: 복잡한 방정식들의 근사해를 구하여 미래의 대기 상태를 도출하는 것이다.
- ③ ㉢: 수치예보 모델의 가동 목적에 따라 모의할 대기 영역을 정한다.
- ④ ㉣: 모의 영역을 연직 방향으로 여러 층으로 나누고 각 층을 위도와 경도의 수평 방향으로 일정하게 나눈다.
- ⑤ ㉤: 시간에 대한 초기 조건을 설정할 때는 격자점마다 대기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의 값을 동일하게 부여한다.



24. [경계 조건]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하단 경계에서는 상단 경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대기의 연직 운동이 없다고 가정한다.
- ② 하단 경계에서는 측면 경계에서와 달리 영역 외부의 대기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의 값을 영역 내부에 반영한다.
- ③ 상단 경계와 측면 경계에서는 하단 경계에서와 달리 영역 경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교환을 조건에 반영한다.
- ④ 상단 경계에서는 하단 경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대기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의 값이 왜곡되어 에너지가 비현실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 ⑤ 측면 경계에서는 상단 경계에서와 달리 영역 경계에서 반사된 에너지가 영역 내부로 되돌아온다고 가정한다.

25.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다음은 기상 연구소 갑과 을이 사용하는 수치예보 모델의 주요 특성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A와 C는 전지구 모델이며, B와 D는 모의 영역이 동일한 지역 모델이다. 현재 A~D에 적용된 대기의 최대 속도는 1km/s이다. (단, 각 모델 내에서는 연직 방향의 각 층 사이의 간격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표에 제시된 내용 이외의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갑 연구소]

구분	모델 A	모델 B
수평 방향의 공간분해능	10km	10km
최상층 고도	80km	50km
연직 방향의 층수	80층	100층
시간분해능	8초	8초

[을 연구소]

구분	모델 C	모델 D
수평 방향의 공간분해능	20km	8km
최상층 고도	80km	40km
연직 방향의 층수	40층	80층
시간분해능	8초	3초

- ① A는 C보다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의 해상도가 높으므로 대기 상태를 더 세밀하게 모의할 수 있겠군.
- ② B와 D에 적용된 대기의 최대 속도가 현재의 2배가 된다면, D는 B와 달리 시간분해능을 다시 설정하지는 않아도 되겠군.
- ③ B와 D는 모두, 상단 경계 조건을 설정할 때 영역 내부에 감쇠층을 두어 에너지가 감쇠층에서 흡수되도록 계산하는 방법이 주요하게 작용하겠군.
- ④ C에 설정된 현재의 수평 방향의 공간분해능을 A와 같아지도록 높이면, C의 전체 계산량은 현재의 4배가 되겠군.
- ⑤ B와 D는 대기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의 값이 상위 모델과 불일치하는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A나 C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측면 경계 조건으로 활용하겠군.

[26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 규범이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어떠한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행위자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때의 구성요건이란 법률로 정해 놓은 범죄 행위의 유형으로, 예를 들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된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더라도 정당방위와 같이 위법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위법한 행위인 경우에만 이를 ‘불법’이라고 ㉠ 부른다. 불법이라고 평가되더라도, 행위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행위를 할 수 있는 책임능력이 있음에도 불법을 저질렀을 때만 행위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즉, 세 살짜리 아이의 행위는 불법하다 하더라도 범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형벌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 재산, 생명을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제재이기 때문에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행위자에게 책임이 없으면 형벌을 부과할 수 없고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책임의 한도를 넘지 못한다는 원칙인 책임주의는 형법의 기본 원리가 된다. 이는 불법의 크기와 행위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형벌이 비례해야 한다는 적정성 원칙과, 행위자가 행한 불법을 이중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이중 평가 금지의 원칙과도 관련된다. 이를 고려해 범죄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과도하게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다.

형법에서는 한 사람이 저지른 죄의 수가 몇 개인지를 판단할 때, 죄의 수가 하나인 것을 일죄라고 하고, 죄의 수가 여러 개인 것을 수죄라고 한다. 일죄는 하나의 행위가 하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가장 전형적이다. 이 외에도 일죄에는 외관상으로는 여러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성요건 사이의 논리적 관계로 인해 하나의 구성요건만 적용되고 다른 구성요건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법조경합이라 부른다. 이때에는 하나 또는 여러 행위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법조문이 여러 개 존재하지만 하나의 법조문만 적용해도 불법의 크기를 책임 정도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다른 사람의 도장까지 몰래 위조하여 찍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과 인장위조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서를 위조하기 위해 인장을 위조한 것이므로, 불법을 이중 평가하지 않기 위해 사문서위조죄만 성립한다고 본다.

수죄로는 하나의 행위에 의해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과 여러 개의 행위에 의해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이 있다. 어떤 사람이 한 개의 돌을 던져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유리창을 깨서, 하나의 행위에 의해 상해죄와 손괴죄가 성립했다면 이 경우는 상상적 경합이다. 상상적 경합에 대해 형법 제40조는 여러 개의 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가장 무거운 죄는 각각의 죄에 대해 법으로 정한 형인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죄를 말한다.

실체적 경합은 수죄의 가장 전형적인 경우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죄를 가리켜서 경합범이라고 부른다. 경합범에 대한 형을 선고할 때 각각의 죄에 선고될 형을 단순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처벌 원칙들을 마련하고 있다. 단

[A] 순 합산하면 범죄의 예방 효과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이는 행위자의 책임 한도를 넘어서는 처벌을 내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별도의 처벌 원칙들 중 가중주의가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인데, 가중주의는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 일정 부분을 가중하여 형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행위로 성립시킨 여러 개의 죄가 동일 재판에서 판결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립한 여러 개의 죄 각각이 개별 재판에서 판결이 완료되어, 경합범에 대해 형법이 마련한 별도의 처벌 원칙을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6. 밑글에서 다룬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일죄의 개념
- ② 형법의 정의
- ③ 법조경합의 종류
- ④ 책임주의의 의미
- ⑤ 상상적 경합의 사례

27. 다음은 밑글을 읽은 학생에게 제공된 학습지의 일부이다. 학생의 ‘판단 결과’로 적절한 것은?

※아래를 읽고 맞으면 ○, 틀리면 × 표시를 하시오.

판단할 내용	판단 결과	
책임능력이 없어도 불법을 저지르면 행위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	... ㉠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기만 하면 범죄가 성립된다.	○	... ㉡
구성요건은 법률로 정해 놓은 범죄 행위의 유형이다.	×	...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모두 위법한 행위이다.	○	... ㉣
불법에 해당하지만 위법이 아닌 경우가 있다.	○	... ㉤

① ㉠      ② ㉡      ③ ㉢      ④ ㉣      ⑤ ㉤

28.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실체적 경합은 경합하는 각각의 죄에 선고될 형을 단순 합산한 것에 일정 부분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은 범죄의 예방 효과가 중복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별도의 처벌 원칙들을 마련하고 있다.
- ③ 경합범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죄가 동일 재판에서 판결될 가능성이 있어야 별도의 처벌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 ④ 실체적 경합은, 한 사람에 의한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 ⑤ 경합범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죄를 가리킨다.

29. 밑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  
A 씨는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자신의 식대를 계산할 때 사용하며 매출전표에 허위로 서명하였다. 검사는 A 씨가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출전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문서위조죄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신용카드부정사용죄만이 성립한다고 판결하였다.

(나)  
B 씨는 C 기관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C 기관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내용의 광고를 실었다. 검사는 B 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기소하였다. 법원은 두 가지 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판결하였다.

- ① (가)에서 검사는 A 씨가 여러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문서위조죄로 기소한 것이 옳군.
- ② (가)에서 법원은 A 씨가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과 매출전표에 서명한 것을 평가할 때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문서위조죄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본 것이 옳군.
- ③ (가)에서 법원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 간의 논리적 관계를 판단하여 A 씨에게 신용카드부정사용죄만 적용해도 불법의 크기를 책임 정도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본 것이 옳군.
- ④ (나)에서 법원은 B 씨의 범죄가 수죄라고 보고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죄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 것이 옳군.
- ⑤ (나)에서 법원은 B 씨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두 개의 행위를 했다고 보았지만 불법을 이중 평가하지 않기 위해 하나의 죄로만 처벌한 것이 옳군.

30. 밑줄 친 부분의 문맥적 의미가 ㉠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친구는 그를 천재라고 불렀다.
- ② 선행은 또 다른 선행을 부른다.
- ③ 나는 집 앞으로 택시를 불렀다.
- ④ 그 가게에서는 값을 싸게 부른다.
- ⑤ 나는 멀리 있는 친구를 손짓하여 불렀다.

[31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낭원 곽후가 얼음 빛 냉정한 얼굴로 차갑고 매섭게 말하였다. “신첩 낭원은 윤회를 두 번 하였사오나 한나라와 맺은 원은 수백 년이 지나도 풀지 못하였습니다. 처음 인간 세계에 내려가서는 여태자의 후궁이 되어 왕손을 낳았으나 공손비에게 은총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깊은 궁에서 우울하게 지내다가 원수 늙 강충의 꾀에 빠져 태자가 원통하게 죽으매 첩 또한 태자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 후 다시 한나라에 태어나 부귀한 가문의 귀한 딸이 되었습니다. 비로소 전생의 억울함을 씻고 여태자가 재생한 광무제 유수를 만나 숙연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 원래 유수의 집안은 동기가 많고 빈한한데 비하여 신첩의 집안은 왕실을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 부유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늘이 정한 인연에 매여 빈한한 유수에게 시집을 갔던 것입니다.

세 칸 초가집에서 빵을 심고 보리죽이라도 쑤며, 남편의 뜻을 따르고 아주머니와 시누이를 공경하며 시부모를 봉양하였습니다. ㉡ 그리고 마침내 친정 집안의 재산으로 남편이 천하를 도모하게 하였으니, 비록 천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첩이 내조한 공덕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어려움을 함께한 신첩을 후에 헌신짝처럼 버리니 신첩의 억울함과 원통함이 어찌 빼어 사무치지 않겠습니까? 인간 세상으로의 윤회는 실로 기쁘지 아니합니다. 하오나 이번 윤회에는 음양을 바꾸어 신첩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되고, 저 유수는 여자가 되게 하여 복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골수에 깊이 박힌 곽후의 원통함을 들은 옥황상제는 복수를 하지 못하게 할 수가 없었다. 이에 고개를 숙이며 강목왕 유수와 태음성 음후를 즉시 데려오라고 명하였다. 잠시 후 그들이 이르자 옥황상제가 소원을 물었다. 강목왕 유수와 태음성 음후는 다만 옥황상제의 만수무강하심을 축수할 뿐 말이 없었다. 옥황상제가 비로소 머리를 끄덕이고는 남두성과 북두성에게 세 사람의 윤회보응을 분명히 하라고 명령하였다. 남두성과 북두성이 명을 받고는 서천여래를 청하였다.

“한나라 때의 세 사람이 갈 곳을 명하소서.”

서천여래가 즉시 옥갑신에게 명하여 각각 갈 곳을 점지하였다. 그때 옥황상제가 낭원 곽후와 강목왕 유수의 음양을 바꾸라고 명하자, 서천여래가 유리병에 든 감로수를 낭원 곽후와 강목왕 유수에게 뿌리며 진언을 외었다. 잠시 후 낭원 곽후는 작고 작약한 몸이 변하여 팔척장신의 헌헌장부가 되었다. 옷을 가져와 입히니 아리따운 부인이 순식간에 흰칠한 호걸이 되었다. 기쁨을 감추지 못한 낭원 곽후는 반평생 품었던 한을 잊고 화색이 도는 얼굴로 옥황상제께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한편 강목왕 유수의 썩썩한 몸도 순식간에 꽃다운 여자의 몸으로 변했다. 왕의 옷을 벗기고 짧은 저고리와 긴 치마를 입히니 옥 같고 꽃 같은 자태가 수려하였다. 달을 숨게 하고 꽃을 부끄럽게 할 만하였으며 물속의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을 잊어 가라앉고, 날아가는 기러기가 날갯짓을 멈춰 떨어질 만큼 아름다웠다. 곁에 있던 선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크게 웃으니 강목왕 유수가 몹시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면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태음성 음후는 얼굴이 흙빛이 되어 말을 하지 못하였다. 옥황상제가 말하였다.

“짐이 낭원의 소원을 따르고자 하니 너희들은 각각 태어나고 싶은 곳을 말해 보아라.”

[중략 줄거리] 곽후와 유수, 유수의 계비 음후는 각각 강왕, 조수아, 설여주로 환생하고, 곽후와 각별한 사이였던 시누이 백희 공주는 위옥희로 환생한다. 강왕은 조수아와 혼인하고, 이후 전쟁터에서 돌아온 위옥희와 혼인한다.

조수아가 노발대발하며 베개를 베고 누우니 머리에 쓴 관은 벗겨지고 귀밑 비녀는 빠져 있었다. 가을 물결같이 맑은 두 눈에 노기가 등등한 가운데 두 뺨에는 근심과 원한이 가득하니 강왕이 한참 동안 살펴보다가 말하였다.

“㉢ 과인이 죽지 않았는데, 채운루에 박복한 청상 홀어미 모습이 어찌된 일요? 자세히 곡절을 알고자 하오.”

“이 몸이 홀어미나 과부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대왕께서 이미 위씨를 만났으니 첩은 박명한 사람입니다. 첩이 스스로 깊은 방에 거처하며 이 세상을 마치려 하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대왕께서는 더이상 묻지 마십시오.”

말을 마치고 화난 기색이 드러나니 강왕이 교만하고 속 좁음을 즐거워하지 않아 잠시 후 다시 웃으며 말하였다.

“위씨는 당초 과인과 혼인을 약속했던 옛 정인이요. 또한 남서 땅에서 세운 큰 공은 갚을 길이 없고 과인을 병에서 구한 은공 또한 적지 않소. 이런 이유로 임금께서 표창하신 것이고 과인이 또한 공경하는 것이요. 위씨가 궁중에 온 지 겨우 이틀인데 부인이 이처럼 투기를 하니 그 곡절을 알지 못하겠소. 부인의 이러한 뜬금없는 행동을 과인이 또 어찌 웃어넘길 수 있겠소? 스스로 성질을 이기지 못하여 자녀를 때리니 투기하는 부인이 무서워 과인이 어찌 장부의 풍류를 엿볼 수 있겠소?”

말을 마치고 발걸음을 돌려 남궁으로 향하였다. 조수아가 강왕의 준절한 기색을 보니 평소 진중하였던 사랑이 없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는데 문득 유모 계파가 들어와 좋은 말로 위로하니 조비가 탄식하였다.

“㉣ 나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은 것보다는 차라리 베옷을 입는 궁벽한 선비의 아내가 되어 보리밥과 푸성귀 반찬에 만족하고 나무뿌리와 고사리를 캐며 살기를 항상 원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마음이 번잡한 것이다. 억지로 아닌 척하고자 하나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이 모든 것이 하늘이 정한 운명이다. 나는 이제 분하고 원통하여 죽을 것 같다.”

계파는 조수아가 어렸을 때부터 젖을 먹여 키운 정이 깊었다. 그 신세가 불안함을 생각하니 어찌 마음이 편안하겠는가? 우울하였으나 어찌할 계교가 없었다. 계파는 본래 성품이 모가 나지 않았기에 위옥희를 해칠 마음을 내거나 하지는 않았다.

이날 밤 강왕이 남궁에 이르러 위옥희를 대하니 옥 같은 자태와 달빛 같은 광채가 더욱 새로웠다. 왕이 혼연히 웃으며 말하였다.

“㉤ 과인이 과연 처복이 넘치는 것 같소. 과인이 본래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오매불망 구한 것이 아닌데 하늘에서 성녀를 점지하였으니, 부부가 된 성인 성녀를 기리는 『시경』의 노래가 조금도 부럽지 않소. 또한 조씨같이 아름다운 여인이 그 뒤를 이었으니 그대가 태임, 태사의 덕을 이어 과인에게 내조를 잘 하시도록 하오.”

- 작자 미상, 「한조삼성기봉(漢朝三姓奇逢)」-

3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행동을 과장되게 표현하여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② 편집자적 논평을 활용하여 서술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독백을 반복하여 내적 갈등의 해결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꿈과 현실을 교차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 ⑤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긴박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32. ㉠~㉥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자신과 다른 인물의 차이점을 언급하며 앞으로의 일을 예견하고 있다.
- ② ㉡: 사건의 인과 관계를 바탕으로 상대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③ ㉢: 상대의 외양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며 상대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 ④ ㉣: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며 상대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다.
- ⑤ ㉤: 다른 사람의 말을 근거로 삼아 자신의 행동 변화에 대해 약속하고 있다.

33. 다음은 학생이 윗글을 읽고 작성한 메모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여태자: 강충의 계략에 빠져 억울하게 죽음. .... ㉠
- 음후: 옥황상제 앞에 유수와 함께 이르러 소원이 무엇인지 질문을 받음. .... ㉡
- 남두성과 북두성: 옥황상제의 명령을 받고 서천여래를 불러옴. .... ㉢
- 위옥희: 남서 땅에서 공을 세우고 강왕을 병에서 구함. .... ㉣
- 계파: 위옥희를 해칠 마음은 있었지만 실제로 계책을 세우지 못함. .... ㉤

- ① ㉠      ② ㉡      ③ ㉢      ④ ㉣      ⑤ ㉤

3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한조삼성기봉」에는 부부가 전생과 다른 성별로 환생하는 환생담 구조가 드러난다. 작품에서 여성 인물은 남편으로 인한 심적 고통을 토로하며 환생을 통해 이를 보상받고자 하는데, 초월적 존재가 개입하여 이를 돕는다. 환생 전후의 부부 관계가 역전되어 전생의 남편은 환생 후, 전생의 아내가 겪었던 심적 고통을 겪게 된다. 이는 가부장제 하의 남성과 여성의 권력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곽후가 남편과 함께 겪은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후 남편이 자신에게 행한 일을 밝히는 장면에서 여성 인물이 원통한 마음을 품게 된 원인이 드러나는군.
- ② 곽후가 윤회에 관한 소원을 비는 장면에서 여성 인물이 다음 생에서 남편과 서로 반대의 성별로 태어나고자 하는 이유가 드러나는군.
- ③ 옥황상제가 한나라 시대의 세 사람의 윤회를 관장하는 장면에서 초월적 존재가 개입하여 인물의 부탁을 수용하고 있음이 드러나는군.
- ④ 조수아가 스스로를 박명하다고 인식하고 분한 감정을 토로하는 것에서 환생으로 인해 부부의 처지가 역전되어 전생에 남편이었던 인물이 심적 고통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강왕이 남궁에 이르러 위옥희를 만나 내조를 요구하는 것에서 가부장적 질서를 구현하기 위해 자신의 입장을 상대와 바꾸려고 하는 인물의 모습을 알 수 있군.

[35 ~ 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홍보실 내의 직원이라야 김 실장과 사진 기자 미스터 윤, 그리고 타자수 미스 홍과 그가 전부였다. 이 방 안의 우두머리인 김 실장이 ㉠ 실눈을 뜨기 시작하면 일은 이미 그른 거나 다름없었다. 그의 실눈은 뱀처럼 찬 냉기를 안으로 담고 있어서 마주 보기가 대단히 섬뜩하였다.

퇴근 시간이 아주 임박해졌을 무렵, 그는 드디어 김 실장의 실눈이 자신의 온몸을 훑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와 동시에 한 페이지 원고도 완성치 못한 자신의 무능도 발견했다. ㉡ 모든 것은, 그래 바로 그 살쥔 쥐 탓이야. 열결에 그는 이렇게 중얼거리고 말았으나 느닷없는 이 말조차 그에겐 당혹하기만 했다. 그때 실장의 목소리가 그의 당혹 속으로 날아 들어왔다. ㉢ 미스터 정. 미스터라니. 그는 자신의 호칭에 대해 다시 낮을 붉힌다.

“상무님 퇴근 전에 원고 올려봐요.”

“네, 그런데…….”

“아직 다 못 썼나요?”

“네, 그제…….”

“㉣ 몇 장까지 나갔어요?”

“글쎄 그제…….”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김 실장은 끈덕지게 캐묻기 시작했다. 그는 틀림없이 동년배이거나 후배일 김 실장의 질책에 전전긍긍하면서 당황하기 시작한다.

“쓴 것을 보여주세요.”

“아직…….”

“아니 아직이라니, 도대체 몇 장을 썼단 말ियो?”

“…….”

“쫓쫓, 벌써 사흘째나 붙들고 있었으면서 헛공상만 했구료. 미스터 정의 성실성이 의심됩니다.”

김 실장은 갑자기 말의 기세를 누그러뜨리며 실눈 속에서 교활하게 웃었다.

“내일은 끝내도록 해요.”

㉔ 김 실장이 아랫사람을 다스리는 상전의 따뜻한 태도로 재빨리 복귀하는 것을 바라보며 그는 멍청해졌다. 김 실장은 서른일곱이거나 서른여섯, 혹은 서른다섯일 것이었다. 그는 그사이 흘러내린 볼펜 똥을 닦으며 빈 원고 용지 위에 37, 36, 35라고 써보았다.

그가 조금 지친 듯한 표정으로 산비탈 길을 오르면서 까닭 모르게 긴 한숨을 쉬는 시간은 늘 일정했다. 여기저기서 아이들을 불러들이는 시간, 누구네 집에서건 모두 손을 씻고 식탁에 모여 앉는 시간, 그래서 대문 앞에 여인네들이 모여 있지 않은 시간이 바로 그때로서, 그는 등 언저리에 배기 시작하는 땀을 귀찮아하면서 돌연 긴 숨을 몰아쉬는 것이다. 그것은 말하자면 하나의 신호였다. 오늘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 그러나 그가 바랐던 바의 모든 생활이 오늘도 여전히 짝수 노랑게 틀려 있다는 것, 그리하여 다시 짝수 노란 또 하나의 태두리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신호라고 보아도 무방했다.

거기다 오늘은 김 실장에게 당한 자신의 무능까지 겹쳐 있었으므로 그의 한숨은 유난히 길고 탁했다. 그 긴 한숨과 함께 수십 개의 가파른 계단을 올라 초록색 페인트칠을 한 대문 앞에 이르면 불현듯 지나온 저 아랫동네들의 모든 기척이 숨죽여 엎드리는 듯한 묘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매번 그러했다. 그때마다 그는 지저분하고 그러면서도 쓸모가 넘치는 그 모든 낡은 집과 하수구와 넘치는 변소 냄새들이 일시에 그를 우러러봐주기라도 하는 듯 그것들을 찬찬히 둘러보는 것 또한 잊지 않았다. 한숨과 애무의 시선. 이것이 곧 그의 모든 삶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느낌이 얼핏 그 장면에서 떠오르기도 하지만, 그가 대문을 들어서면서 짓게 되는 미소며 ㉕ 헛기침 등은 애당초 마지막 운운과는 아예 거리가 멀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 꼭대기까지 올라오면서 흘리는 땀이나, 다리의 통증, 그리고 억눌려 있던 하루 일 등을 감안한다면 대문 안에 들어서면서부터 그가 짓는 미소며 헛기침은 가당찮은 억지였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해야만이 이 소왕국의 평화가 유지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밖에서야 어쨌든 일단 집 안에서의 그는 칠백만 불의 사나이거나 슈퍼맨이거나 무적의 검객에 세도가여야 했다. 모든 일이 다 그러하듯이 실현은 힘들어도 어쨌든 흉내쯤은 쉬웠으므로 그는 하루의 중반부를 그렇게 시작하며 아까 뱉었던 긴 한숨을 잊기로 하는 것이다.

(중략)

“문을 열어놓았는데도 나간 것 같지 않아요. 아까도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저게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단단히 작정을 했나봐요.”

역시 그랬다. 아무도 그에게 휴식을 주려 하지 않았다. 꼭대기 집까지 기어오르면서 흘린 땀을 닦기도 전에 아이들은 옆집 아이와 싸운 생채기를 보이며 복수전을 중용했고, 아내는 아내대로

쥐의 횡포를 호소하며 그의 무기력한 얼굴에 어서 전의가 떠오르기를 부채질했다. 여기까지 와서 쥐잡기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아내 말대로라면 쥐는 먹을 것도 없는 작은방에 처박혀 있었기에 잔뜩 기운이 빠져 있을 거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없는 낮 동안에 탈출을 시도하지 않은 쥐를 생각하면, 전신으로 솟아오르던 전의가 슬쩍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㉖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는 망연자실 방문 앞에 서서 똑같은 생각을 되풀이해보았다. 밤이면 틀림없이 목숨을 건 추적극이 벌어질 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쥐는 왼쪽 오른쪽도 구별할 줄 아는 영리한 동물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다. 그는 다시 막대기와 연탄집게를 챙겨놓고서 구석구석을 노려보았다.

아빠는 여태 쥐를 못 잡았어? 아들 녀석들의 목소리가 긴장된 그의 등을 타고 넘어왔다. 쥐똥과 쥐오줌, 분명히 말아지는 쥐의 냄새, 이런 것들을 빼고 나면 허공과 마주 서서 대항하고 있는 무기력한 슈퍼맨. 그는 문득 자신이 치고 있는 이 뗏에 걸릴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져버렸다. 상무나 김 실장 앞에서 기다란 손과 발을 늘어뜨린 채 서 있기만 하던 그 자신이 떠올랐다. 바로 그런 자신이 지금은 이 잔악한 도구를 휘두를 작정을 하고 있다는 데 생각이 미치자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슬그머니 팔의 힘을 풀고 방바닥에 주저앉아버렸다.

— 양귀자, 「쥐」 —

35.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품 밖의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② 장면의 빈번한 전환을 통해 인물 간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 ③ 시대적 배경을 제시하여 사건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외부 이야기 속에 내부 이야기를 삽입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서로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제시하여 인물들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36. ㉑~㉖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자신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원인을 다른 대상에 돌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② ㉒: 상대가 자신을 부른 호칭으로 인해 느끼는 불편한 감정이 담겨 있다.
- ③ ㉓: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상대를 질책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④ ㉔: 상대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급작스럽게 달라진 것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 있다.
- ⑤ ㉕: 자신의 예상과 다른 행동을 보인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담겨 있다.

37.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그’가 앞으로 벌어질 일을 짐작하게 되는 단서이고, ㉡는 ‘그’가 자신이 겪은 일에서 느낀 심정을 감추기 위해 하는 행동이다.
- ② ㉠은 ‘그’가 ‘김 실장’을 오해하게 되는 계기이고, ㉡는 ‘그’가 자신이 품고 있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하는 행동이다.
- ③ ㉠은 ‘그’가 삶에 대한 활력을 얻게 되는 계기이고, ㉡는 ‘그’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 하는 행동이다.
- ④ ㉠은 ‘그’가 ‘김 실장’의 허점을 발견하게 되는 단서이고, ㉡는 ‘그’가 자신의 실수를 숨기기 위해 하는 행동이다.
- ⑤ ㉠은 ‘그’가 안도감을 느끼게 되는 계기이고, ㉡는 ‘그’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하는 행동이다.

38.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에는 인물이 가정과 사회라는 집단 속에서 부여받은 역할을 수행하며 느끼는 무력감이 나타난다. 인물은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받는 부정적 시선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도 하고, 가정 내에서 받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실과 기대 사이의 괴리를 느끼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쥐는 인물이 자신과 동일시하는 대상으로 나타나는데, 쥐를 통해 인물은 스스로의 상황을 자각한다.

- ① ‘빈 원고 용지’에 ‘37, 36, 35라고 써보’는 그의 모습에서, 자신에 대한 상대의 부정적인 시선에도 인물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② ‘어설픈 흉내’를 내는 자신을 생각하며 ‘긴 한숨을 잊기로’ 한다는 것에서, 현실과 기대 사이의 괴리로 인해 자신을 향한 가족의 기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물의 심리를 짐작할 수 있겠군.
- ③ ‘구석구석을 노려보’던 그가 ‘허공과 마주 서서 대항하고 있’다는 것에서, 인물의 무력한 모습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④ ‘뒷에 걸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다가 ‘상무나 김 실장 앞에’ ‘서 있’던 ‘자신’을 떠올린 것에서, 인물이 자신의 모습을 쥐에 투영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⑤ ‘잔악한 도구를 휘두를 작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웃음이 터져 나왔다’는 것에서, 인물이 상황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돌아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겠군.

[39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구중궁궐 님 계시니 만날 길이 요원하다  
 많고 많은 온갖 일들로 소의간식\*하시니  
 건강은 어떠신지 얼굴빛도 파리하다  
 정성으로 겨울 기러기 따라 석양 햇빛 잠깐 뜨니  
 사랑하는 겨울 햇빛 찬 근심을 녹여낸다  
 이웃의 칠실녀\* 손짓하여 불러 와서

대바구니 옆에 끼고 **미나리** 캐어 보니  
 살지고 연한 맛을 님에게 드리고저  
 받들고 바라보니 **천리에 뉘 전할고**  
 싸고 다시 싸서 베개 밑에 놓아두고  
 사창(紗窓) 지는 달에 **첫잠**을 잠깐 드니  
 나비가 청조(靑鳥)되어 인도해서 가고 가니  
**옥루 높은 곳에** 화촉이 찬란한데  
 옥안(玉顔)을 잠깐 열어 너로구나 웃으실새  
 평생 생각던 얼굴 정말 이러하시던가  
 정성을 다 기울여 말쑤를 드릴 제  
 심간(心肝)을 떼어 내고 뼈를 온통 다 갈아도  
 아픈 줄 전혀 몰라 무진무진 더 하였네  
 이렇듯 깊은 정성 가약이 늦어 가니  
 이팔 청춘 고운 눈썹 반이나 바래었네  
 비단 잠옷 옥침병에 향내가 점점 적다  
 하물며 세밀에 근심 더욱 깊어  
 ㉠초목이 시들고 미인도 늙어 가니  
 젊은 날 못 만나고 늙은 후에 서로 본들  
 가슴 속 쌓인 정을 어느 곁에 다 펼칠까  
 (중략)

거문고를 무릎 위에 빗겨 놓고  
**장상사 한 곡조**를 우조로 슬피 타니  
 쌍봉이 넘노는 듯 고향이 울고 가는 듯  
 강은 깊고 달이 높으니 하늘도 점점 높다  
 줄줄이 슬픈 소리 **내 마음 일렁인다**  
 장풍이 슬쩍 불어 임 계신 데 돌아가면  
 한밤중 베개 위에 부디부디 느끼시리  
 답답하고 그리운 때 **하늘을 바라보니**  
 넓고도 높은 기상 이 아니 님이신가  
 평생에 우러름이 진실로 하늘 같은 내 님이라  
 두어라 천명과 천시 정한 때 있으니  
**추당에 만부용\*** 되어 수홍\*하며 기다리려 하노라  
 - 류도관, 「사미인곡(思美人曲)」 -

- \* 소의간식: 날이 밝기 전에 옷을 입고, 해가 진 후에 식사를 함.
- \* 칠실녀: 나랏일을 근심했던 칠실 땅의 여인.
- \* 추당에 만부용: 가을 연못에 때늦은 연꽃.
- \* 수홍: 붉은 빛을 지킴. 곧 님을 향한 연모의 마음을 지킴.

(나)

신이 생각해 보니 ㉡산수를 그린 그림은 예부터 있었지만 대궐을 그린 그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병풍을 만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산수는 만고의 세월이 흘러도 바뀌지 않지만, 대궐은 사람에 따라 지어졌다 무너집니다. 바뀌지 않는 산수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지만, 지어졌다 무너지는 궁궐에 대해서는 사람이 느끼는 바가 필시 많을 것입니다. 그러하나 눈으로 보면 생각이 뒤따르고, 생각이 떠오르면 걱정과 기쁨이 뒤따르는 법입니다. 세상의 군주가 험난한 산하와 화려한 대궐을 보며 마음속으로 ‘험난한 산하가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으며, 화려한 대궐에서 어떻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한다면, 걱정할 만한 점을 알아서 태평성대를 이룩하는 근본이라고 하겠습니까. ‘산하가 험난하니 누가 침략할 수 있겠으며, 화려한 대궐을 누가 가져갈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한다면 기뻐할 줄만 알아서 멸망을 자초하는 길이라 하겠습니까.



㉔ 지금 우리 전하께서는 평소 그림을 펼쳐 보시며 마음속으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나라가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는 것은 무상한 법이니, 성패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 거대하고 화려한 궁궐을 어찌 항상 소유할 수 있겠는가. ㉕ 선대 임금들께서 비바람에 시달리는 고초를 겪으며 부지런히 대궐 터를 살펴보신 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성상께서는 보시는 것마다 모두 걱정스러워 흥망을 생각하며 늘 안일을 경계하실 것입니다. **성상께서 병풍을 만들겠다고 생각하신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와 같다면 그림은 감상하는 물건이 아니라 성상의 안목을 기르고 성상의 덕을 닦는 도구입니다.

옛적 한나라 반고가 「양도부」를 짓고 왕연수가 「노영광전부」를 지었습니다. 모두 화려하고 거대한 궁궐과 높은 누대, 깊은 못을 자세히 묘사했을 뿐 서술을 바탕으로 경계하고 깨우칠 줄은 몰랐습니다. ㉖ 그 문장은 비록 물길에 터지듯 험차고 알록달록 아름답기야 하지만, 당시 군주의 다스림에 무슨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지금 우리 전하께서는 연못과 누대, 전각이 드러내는 참모습을 보기에 부족하다 여기시고, 반드시 그림으로 옮겨 한 장의 종이에 담고자 하셨습니다. ㉗ 이는 구중궁궐 깊숙한 곳을 벗어나지 않고도 먼 곳의 산수와 드넓은 대궐을 한눈에 명료하게 보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뻐할 만한 일과 걱정스러운 일이 눈에 보이면 마음속으로 경계하고, 마음속으로 경계하면 정사에 실천하며, 정사에 실천하면 나라가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신은 성상의 학문이 날로 높아지고 다스림의 근본이 날로 두터워지리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루어진 일을 보고서 무너질 일을 염려함은** 나라를 소유한 군주가 먼저 힘써야 하는 일이고, 사건을 계기로 경계를 아뢰은 임금을 사랑하는 신하의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것이 신이 반고와 왕연수처럼 쓸데없는 말을 지어내지 않고 **송경의 「무일도」와 이덕유의 「단의잠」에 연연하는 이유입니다.**

아, ㉘ **앞으로 왕위를 계승하는 성스러운 자손이 이 병풍을 마주 보면 매번 오늘날 전하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삼을 것입니다.** 강도를 온전히 보존하는 길은 실로 경계하고 반성하는 데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른바 왕자(王者)의 마을과 천부(天府)의 나라가 영원히 후손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이 병풍이 나라의 흥망에 관계된다는 이야기가 참으로 옳지 않겠습니까. 신은 이에 글을 지어 기록합니다.

— 홍섬, 「한양궁궐도기(漢陽宮闕圖記)」 —

39.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직유법을 사용하여 상황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연쇄적 표현을 활용하여 관련 있는 상황들을 연결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동일한 색채어를 반복하여 대상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계절적 배경을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40. ㉑과 ㉒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㉑은 화자의 근심을 해소하는 대상이고, ㉒은 글쓴이의 근심을 심화하는 대상이다.
- ② ㉑은 화자가 의구심을 느끼는 대상이고, ㉒은 글쓴이가 존경심을 느끼는 대상이다.
- ③ ㉑은 화자가 이질감을 느끼는 대상이고, ㉒은 글쓴이가 동질감을 느끼는 대상이다.
- ④ ㉑은 화자가 유한성을 지녔다고 보는 대상이고, ㉒은 글쓴이가 불변성을 지녔다고 보는 대상이다.
- ⑤ ㉑은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지녔다고 보는 대상이고, ㉒은 글쓴이가 지향하는 가치를 지녔다고 보는 대상이다.

41. ㉓ ~ ㉖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㉓: 그림이 임금에게 생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추측을 나타낸다.
- ② ㉔: 선왕들의 행적이 의미하는 바를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낸다.
- ③ ㉕: 그 문장이 임금의 선정을 널리 알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아름답지 않았다는 생각을 나타낸다.
- ④ ㉖: 임금의 의도가, 보고 싶은 경관을 늘 가까이에 두고 보고자 하는 것이라는 추측을 나타낸다.
- ⑤ ㉗: 병풍을 통해 후대 왕에게 현재 임금의 뜻이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을 나타낸다.

42.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사대부 작가들은 임금에 대한 충정을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낸다. (가)의 작가는 관직에 나아가지 못한 인물로, 자신의 상황적 제약으로 인한 서글픔과 임금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내면서 현실을 감내하려는 태도를 드러낸다. (나)의 작가는 조정에서 관직을 수행하며 신하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임금의 해안을 청송하면서도 임금이 지녀야 할 자세에 대한 권계를 드러낸다.

- ① (가)에서 ‘미나리’를 ‘천리에 뉘 전할고’라고 하는 것에서 상황적 제약으로 인해 임금에게 닿을 수 없는 모습이 드러나 있군.
- ② (가)에서 ‘장상사 한 곡조’에 ‘내 마음 일렁인다’는 것에서 자신의 처지로 인한 서러운 심정을 엿볼 수 있군.
- ③ (나)에서 ‘성상께서 병풍을 만들겠다고 생각하신 것’에 대한 이유를 언급하는 것에서 군주로서의 소양을 갖추고자 하는 임금의 해안을 강조하고 있군.
- ④ (가)에서 ‘첫잠’이 들어 ‘옥루 높은 곳에’ 간다는 것에서 임금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나)에서 ‘송경’과 ‘이덕유’의 글에 ‘연연’한다는 것에서 신하로서의 본분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군.
- ⑤ (가)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추당에 만부용’이 되겠다는 것에서 현실을 견디려는 모습이, (나)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고서 무너질 일을 염려’한다는 것에서 임금에게 훗날에 대한 지나친 걱정으로 정사를 그르치지 말 것을 권계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군.

[43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별도  
하늘도  
밤도  
치웁다

얼어붙은 심장 밑으로 흐르던  
한 줄기 ㉠ 가는 어느 난류가 멈추고

㉡ 지치도록 고요한 하늘에 별도 얼어붙어  
**하늘이 무너지고**  
**지구가 정지하고**  
푸른 별이 ㉢ 모조리 떨어질지라도

그래도 서러울 리 없다는 너는  
오 너는 **아직 고운 심장을 지녔거니**

**밤이 이대로 억만 년이야 갈리라구.....**  
- 신석정, 「고운 심장」 -

(나)

구두는 ㉣ 월 새 없이 낚아가고  
장대동 중앙시장에는 새 상가가 들어섰다  
어깨에 묻어오는 오늘의 피곤이  
이십 년은 ㉤ 죽히 녀은 스승의 서재에서  
먼지로 앉고  
스승은 넥타이를 풀다

새로 산 책을 넘긴다  
스승은 새로운 학문을 수용하고 도시를 다스리는 정의론과  
인권론과 형평론을 안경 너머로 바라본다  
눈을 부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스승은 낚아가고  
구두는 현관에서 낚아가지만  
내일도 **장대동 중앙시장**  
새로 선 상가를 지나  
**하룻밤새 또 건물**을 지은  
도시의 길을 밟을 것이다

스승은 낚은 구두처럼  
새 것으로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새롭게 등장하는 것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스승이 낚아가는 것인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훨씬은 더 **먼저 낚아갈 것인가**

- 허수경, 「스승의 구두」 -

43. (가)와 (나)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명사로 시행을 마무리하여 여운을 남기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시어를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하강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배경을 묘사하고 있다.
- ⑤ (나)는 (가)와 달리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여 대상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44.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심장 밑’에서 ‘흐르던’ ‘난류’의 미약함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 ② ㉡은 ‘하늘’이 ‘별’로 인해 ‘얼어붙’은 정적인 상태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 ③ ㉢은 ‘푸른 별’이 남김없이 ‘떨어질’ 것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 ④ ㉣은 ‘구두’가 ‘낚아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 ⑤ ㉤은 ‘스승의 서재’가 충분히 오래된 공간임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는 일제 강점기를, (나)는 산업화의 시기를 배경으로 한 시로, 현실과 변화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화자는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상징적 대상을 통해 현실 극복에 대한 희망과 변화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화자는 급격하게 변하는 현실과 이에 대응하는 인물의 모습을 관찰함으로써 현실의 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① (가)에서 ‘하늘이 무너지고’ ‘지구가 정지’한다는 것에서 시대적 현실로 인한 절망적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② (가)에서 ‘너’가 ‘아직 고운 심장을 지녔’다는 것에서 생명력을 지닌 대상을 통해 냉혹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화자의 희망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③ (나)에서 ‘장대동 중앙시장’에 ‘하룻밤새 또 건물’이 지어진다는 것에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④ (나)에서 ‘스승’이 ‘새롭게 등장하는 것들을 어깨에 짊어지’는 것에서 현실을 도외시하지 않고 현실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인물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⑤ (가)에서 ‘밤이 이대로 억만 년이야 갈리라구’라는 것에서 현실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화자의 염원을, (나)에서 ‘새로운 모습’의 ‘모든 것들이’ ‘먼저 낚아갈 것인가’라는 것에서 새로운 모습의 현실도 변화될 것이라는 화자의 인식을 짐작할 수 있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